

한국주거학회의 연구동향

한국 주거학의 연구동향 - 한국주거학회 논문집을 중심으로



안 옥 희 (영남대 가족주거학과 교수) 조 성 희 (부산대 주거환경학과 교수)

I. 서론

삶의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에 있어서 공통된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공간인 주거는 단순히 본능적인 반응으로만 생각할 수 없으며, 보다 복잡하고 상호 관련적인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¹⁾. 주거학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주거학은 물리적 주택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생활공간과 생활환경을 계획·설계·디자인하고 생산·유통·판매하는 동시에 운영·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주자의 다양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종합 응용실천학문이다²⁾”. 주거학에서의 주 대상은 인간의 생활공간과 생활환경으로 주택을 중심으로 한 인간이 만들어낸 근접한 환경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학, 심리학, 환경학, 건축학, 경영학 등 다른 학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다른 학문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하나의 학문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등의 동향을 파악하여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9년 한국주거학회의 창립 2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주거학의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의 주거학 연구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주거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한국 주거학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한국주거학회의 논문집은 주거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이다. 1990년 6월 창간호가 발간된 한국주거학회지는 주거학, 주거건축, 주거환경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논문을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학술적 가치가 높은 논문만을 게재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선정되었다. 한국주거학회에서는 논문집 발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국제학술대회 및 월례세미나 개최,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관련학회와 긴밀한 학술적 교류 등의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술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주거학에 관한 학술적 연구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연구논문만을 게재하는 논문집만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자료는 한국주거학회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으로 그 시간적 범위는 창간호(1990년)부터 최근 2008년까지의 모

1) 이소영(2008), 주거학 교육의 유사성과 차별성,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pp.49~55

2) 이경희, 조유현, 김영주, 이소영(2007), 주거학 교육의 특성화 증대방안으로서 시설경영 교과과정도입의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3), pp.107~121.

한국주거학회의 연구동향

[표 1] 한국주거학회 전공 분야 분류

대분류	중분류
주거계획/설계	주거기획 및 계획, 주거복지, 주거연구방법론, 주거설계방법론, 거주 후 평가, 주거행태심리
주거사	한국주거사, 동양주거사, 서양주거사, 주거이론
실내디자인	색채, 가구, 실내디자인 요소, 실내의장, 실내재료, 실내조명
환경계획/설비	실내 환경 계획 및 평가, 자연형 설계, 주거환경설계, 주택설비, 주거안전계획 및 평가, 친환경계획
주거단지계획	택지개발계획, 아파트단지 계획, 주거지 정비계획, 커뮤니티계획, 주거지환경 계획, 주거지 경관
주거관리/리모델링	건물유지관리, 공동주택관리, 관리시스템, 주택개조, 리모델링
주택건설기술경영	프로젝트매니지먼트(PM), 주택건설경영(CM), 주택마케팅, 주택경제, 정보화기술, 디지털홈 구법, 시공기술, 건설재료, 주택구조
주택정책/제도	주택법,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주택정책, 주택문제

든 논문을 이용하였으며,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의 분석은 김현지 외(2004)의 발표논문을 참조하였다. 세부 영역별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주거학회에서 분류한 전공분야(표1)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논문의 분야별 분류는 논문의 제목 및 연구목적 중심을 이루어졌고 그 분류 범위가 불분명한 것은 저자의 구성 및 논문의 결론 등을 참고하였다. 구체적인 분석항목은 세부분야, 논문 수, 저자 수, 연구방법 등이다.

III. 결과 및 고찰

1. 전반적인 연구동향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주거학회지 창간호(1990)부터 2008년까지 게재된 논문수와 저자수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1990년 6월에 창간호를 시작으로 연 2회 발간되었던 한국주거학회지는 1997년과 1998년에는 연 3회,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연 4회 발간하였으며, 2002년부터 현재까지는 연 6회 발간되고 있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 전체 발표된 논문 수는 997편이며, 논문집권 수는 모두 74권이다. 연간 평균 약 52.5편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으며, 논문집 1권당 약 13.8편의 논문이 실렸다.

주거학의 연구인력의 양적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논문을 게재한 저자의 수를 살펴 본 결과, 누적 저자 수는 2,068명이었다. 특히 연간 4회 발간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저자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100명을 넘어섰으며, 2006년에는 200명을 넘어서고 있어 향후 더 많은 저자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또한 연도별 총 저자수를 총 논문수로 나누어 논문 한 편당 평균 저자수를 살펴보면, 시간적 흐름

[표 2] 연도별 논문·저자 현황

연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합계	%		
논문 수	17	14	16	13	21	31	27	43	39	69	52	67	65	97	84	82	102	82	76	997	100.0		
(권당 평균)	139/14(9.9)										82/6(13.7)			188/12(15.7)							588/42(14.0)		(13.8)
저자 수	37	21	29	21	45	55	52	86	88	154	96	121	135	190	161	184	228	202	163	2,068			
1편당 평균	2.18	1.5	1.81	1.62	2.14	1.77	1.93	2.0	2.26	2.23	1.85	1.81	2.08	1.96	1.92	2.24	2.24	2.46	2.14	2.07			
연구 형태																							
단독연구	4	7	6	5	6	13	11	12	10	20	23	28	15	36	31	20	31	15	21	304	30.5		
공동연구	13	7	10	8	15	18	16	31	29	49	29	39	50	61	53	62	71	67	55	693	69.5		
국내연구	17	13	15	12	17	28	22	37	34	61	41	63	59	82	76	68	93	78	72	888	89.1		
국제연구	0	1	1	1	4	3	5	6	5	8	11	4	6	15	8	14	9	4	4	109	10.9		

한국주거학회의 연구동향

[표 3] 연도별 세부분야 현황

전공분야 \ 연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합계(%)
주거계획/설계	6	6	4	3	5	11	6	12	8	21	12	20	11	21	21	22	44	32	34	299(30.0)
주거사	5		2	3	4	2	5	8	3	11	3	7	13	10	14	9	9	10	6	124(12.4)
실내디자인	3	4	6		6	5	5	8	8	15	10	10	7	21	4	6	4	3	1	126(12.6)
환경계획/설비	3	3	2	4	2	4	5	2	5	4	11	7	7	12	17	8	11	11	16	134(13.4)
주거단지계획						6	3	9	8	14	10	14	12	15	4	15	13	9	9	141(14.1)
주거관리/리모델링		1	2	3	1		3	1	3	1	4	4	1	7	9	9	6	5	7	77(7.7)
주택건설기술/경영					2	3		3	4	1	5	5	1	9	12	11	12	11	1	80(8.0)
주택정책/제도					1								2	2	3	2	3	1	2	16(1.6)
전체	17	14	16	13	21	31	27	43	39	69	52	67	65	97	84	82	102	82	76	997(100.0)

에 따른 일정한 변화 없이 평균 2.07명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연구형태를 살펴보면, 저자 단독연구는 30.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공동연구는 69.5%를 차지하고 있다. 즉 주거학분야의 연구는 저자 단독연구보다는 여러 연구자가 함께 연구하는 형태의 공동연구가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논문의 주제나 저자가 우리나라 이외의 나라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국제연구로 보면, 전체 연구의 10.9%가 국제연구에 해당되어 우리나라의 주거학분야 연구의 국제화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세부분야별 연구동향

주거학 연구는 최근 그 세부분야가 많아지고 그 범위나 내용 및 방법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주거학회에서 분류한 총 8가지 영역(표 1)을 기준으로 논문을 분류하여 연도별로 게재된 논문수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창간호부터 2008년까지 세부분야의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계획/설계」분야가 299편(30.0%)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주거단지계획」이 141편(14.1%), 「환경계획/설비」가 134편(13.4%), 「실내디자인」이 126편(12.6%)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거계획/설계」분야는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거계획/설계」분야의 연구자 수가 많고, 주거학 연구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생활」, 「주거교육」, 「주거복지」 등 주거계획이나 설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분야까지 중분류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주거학회에서 학문의 분류를 8개로 부류하고 있는데, 한 개의 세부 영역에 연구가 치우치는 것은 균형적인 학문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주생활 및 주거교육」 등의 새로운 세부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거사」분야는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0년대 전반기에 약간 연구가 증가하다가 후반기에 들어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내디자인」분야 또한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0년대 후반기가 되면서 연구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계획/설비」분야는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주거단지계획」분야는 1995년부터 논문이 게재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연구되고 있으나, 그 수가 많은 편은 아니다. 「주거관리/리모델링」분야는 초기부터 논문이 게재되고 있으나 그 수가 많은 편은 아니다. 「주택건설기술/경영」분야는 1994년부터 논문이 게재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수가 많은 편은 아니나 2003년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한국주거학회의 연구동향

[표 4] 연도별 연구방법 현황

연구방법	연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합계
		문헌 연구	도서관 조사방법	3	4	4	1	4	8	6	8	11	22	9	14[2]	8[2]	15[1]	12[1]	10[2]	19[2]	
	역사적 방법	2	0	3	1	1	0	2	2	0	1	2	8	6	7	6	8	8	10	7	74(7.4)
	소계	5	4	7	2	5	8	8	10	11	23	11	22	14	22	31[1]	18[2]	27[2]	21[3]	16[2]	265(26.6)
조사 연구	설문지	3	3	3	4	9	15	9	15	13	19	12	8	13[1]	13[1]	11	12	23	23	22	230(23.1)
	면접	3	2	1	2	1	2	1	2	2	4	4	5	4	3	5	3	4	5	3	56(5.6)
	실측	1	0	1	1	2	0	2	3	2	4	5	1	4	8	18	22	19	9	10	112(11.2)
	소계	7	5	5	7	12	17	12	20	17	27	21	14	21	34	34	37	46	37	35	408(40.9)
실험 연구	순수	0	0	0	1	0	1	1	1	1	2	5	6	3	4	0	0	0	0	2	27(2.7)
	응용	0	0	1	1	0	1	1	1	2	2	1	2	0	1	2	3	5	3	6	32(3.2)
	소계	0	0	1	2	0	2	2	2	3	4	6	8	3	5	2	3	5	3	8	59(5.9)
복합연구	5	5	3	2	4	4	5	11	8	15	14	23[2]	27	36[2]	30	24	24	21	17	278(27.9)	
합계	17	14	16	13	21	31	27	43	39	69	52	67	65	97	84	82	102	82	76	997(100)	

* []는 인터넷을 이용한 연구를 나타냄

다. 「주거정책/제도」분야는 8개 세부영역 중 가장 연구의 수가 적은 편이나, 2002년 이후부터 꾸준히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 그러나 「주거정책/제도」분야는 하나의 연구분야로 하기에는 연구의 수가 너무 적으므로 다른 분야와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동향

차배근(1998)에 따르면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연구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문헌연구는 도서관조사방법, 역사적 방법의 2종, 조사연구는 설문지법, 면접법, 실측법의 3종, 실험연구는 순수실험, 응용실험의 2종, 그리고 2가지 이상의 연구방법을 사용한 복합연구로 구분하여, 총 8 종류의 연구방법으로 나누었다. 997편의 논문을 각 연구방법에 따라 연도별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반적으로 보면, 조사연구방법이 40.9%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복합연구방법(27.9%)과 문헌연구방법(26.6%)이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실험연구방법이 5.9%로 가장 적게 사용되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편의 논문에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복합연구가 가장 많

이 이용되었으며, 조사연구방법 중에는 설문지법이, 문헌 연구방법 중에는 도서관 조사방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연구방법은 낮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는 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세부분야별 연구방법 분류

세부분야별 연구방법을 분류하여 살펴보면(표 5), 세부 분야별로 연구방법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1). 즉 문헌연구는 「주거사」와 「주택건설기술/경영」, 「주택정책/제도」분야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며, 조사연구는 「주거계획/설계」, 「실내디자인」, 「환경계획/설비」, 「주거관리/리모델링」분야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며, 복합연구는 「주거단지계획」분야에서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실험연구는 「환경계획/설비」분야의 논문이 대부분이었으며, 「주거단지계획」분야에서는 복합연구과 조사연구방법이 비슷하게 사용되었다.



한국주거학회의 연구동향

[표 5] 세부분야에 따른 연구방법 현황***

전공분야	문헌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			복합연구
	도서관 조사방법	역사적 방법	소계	설문지	면접	실측	소계	순수	응용	소계	
주거계획/설계	56[6]	18	74[6]	123	24	10	157	2	2	4	64[1]
주거사	38[2]	33	71[2]	0	1	17	18	0	1	1	35
실내디자인	17[2]	3	20[2]	41	3	10	54	0	7	7	44
환경계획/설비	10	4	14	22	3	33	58	21	10	31	31
주거단지계획	21[3]	8	29[3]	26	10	17	53	0	2	2	57
주거관리/리모델링	10[1]	0	10[1]	14	10	9	33	1	6	7	27
주택건설기술/경영	20[1]	7	37[1]	13	2	15	30	3	3	6	17[3]
주택정책/제도	6[1]	1	7	1	3	1	5	0	1	1	3

***p<.001

* []는 인터넷을 이용한 연구를 나타냄

IV. 결론

본고에서는 2009년 한국주거학회의 창립 20주년을 맞아 한국주거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한국 주거학의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1990년 6월 창간호부터 2008년 논문집까지 총 74권 997편의 연구논문의 세부분야, 논문 수, 저자 수, 연구방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주거학 영역의 양적인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년 2회 발간되었던 논문집은 년 3회, 년 4회 발간을 거쳐 현재 년 6회의 발간으로 획기적인 양적 팽창을 하였다. 논문 수 또한 연간 20편 미만이던 것이 80편 이상의 늘었다. 연구형태는 단독연구보다는 공동연구(69.5%)가 월등히 많아 주거학 연구는 여러 학자들이 팀을 이루어 수행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8개의 세부분야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주거계획/설계」분야가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주거단지계획», 「환경계획/설비», 「실내디자인」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주거계획/설계」분야는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사」분야와 「실내디자인」분야는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0년대 후반기가 되면서 연구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환경계획/설비」분야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단지계획」분야와 「주거관리/리모델링」분야는 꾸준히 논문이 게재되고 있으나 그 수가

많은 편은 아니다. 「주택건설기술/경영」분야와 「주거정책/제도」분야는 연구의 수가 적은 편이나, 2000년대 이후부터 논문 게재 수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구방법은 전반적으로 보면, 조사연구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복합연구방법과 문헌연구방법이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실험연구방법이 가장 적게 사용되었다. 세부분야별로 많이 사용하는 연구방법을 다르다. 즉 문헌연구는 「주거사」와 「주택건설기술/경영», 「주택정책/제도」분야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며, 조사연구는 「주거계획/설계», 「실내디자인», 「환경계획/설비», 「주거관리/리모델링」분야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며, 복합연구는 「주거단지계획」분야에서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실험연구는 「환경계획/설비」분야의 논문이 대부분이었으며, 「주거단지계획」분야에서는 복합연구와 조사연구방법이 비슷하게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1. 이소영(2008), 주거학 교육의 유사성과 차별성,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49~55
2. 이경희, 조유현, 김영주, 이소영(2007), 주거학 교육의 특성과 증대방안으로서 시설경영 교과과정도입의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3), pp.107~121.
3. 김현지, 김현진, 안옥희(2004), 한국주거학회를 통해 본 주거학 영역의 연구동향에 관한 고찰,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 논문집, pp.307~311.
4. 차배근(1998), 사회과학연구방법, 세영사.
5. 안옥희, 윤재용, 배정인(1998), 주거학의 이해, 기문당.